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도구로서의 법궤  
The Ark as a Revelational Instrument of Divine  
Attributes

신득일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 언 | 40
2. 법궤의 기능에 대한 비평적 견해 | 40
  - 2.1. 종교사학파적으로 본 법궤의 기능 | 40
  - 2.2. 전승사 비평의 입장에서 본 법궤의 기능 | 42
  - 2.3. 고고학적 근거로 본 법궤의 기능 | 45
3. 신학적 접근방식: 법궤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도구 | 47
  - 3.1. 하나님의 전능 | 47
  - 3.2. 하나님의 무소부재 | 49
  - 3.3. 하나님의 선 | 49
  - 3.4. 하나님의 거룩 | 51
  - 3.5. 하나님의 주권 | 53
4. 결 론 | 54





요약

##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도구로서의 법궤

학자들이 법궤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들이 제시한 법궤의 기능은 물신(物神), 하나님의 형상을 나르는 상자, 전쟁수호신, 모형성전,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 단순한 상자 그리고 지파동맹체의 공간적 중심이다. 이런 주장들은 법궤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지만 학자들이 성경비밀의 세계와 비교하거나 그들의 가설을 성경본문에 적용시켜서 법궤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했다. 성경 외적인 자료가 나름대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성경본문과 이스라엘 종교를 이해하는데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본고는 법궤의 기능을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도구라고 강조함으로써 이 논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른 시기에 속하는 여러 성경본문은 법궤가 아웨의 속성을 계시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법궤와 관련해서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법궤 자체에 미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아웨의 전능, 무소부재, 선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주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법궤는 그분의 속성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The Ark as a Revelational  
Instrument of Divine Attributes*

주요어  
법궤, 언약궤, 보좌, 발등상, 그룹, 하나님의 속성

## Abstract

### The Ark as a Revelational Instrument of Divine Attributes

Prof. Dr. Deuk-Il Shin

Many scholarly works have resulted in diverse proposals for the function of the ark in the Old Testament. The suggested functions are as follows: fetish-chest, bearer of God's image, a miniature temple, God's throne, footstool, a simple receptacle, a war-palladium and spatial center of amphictyony. These reflections are valuable to some extent in explaining its function but scholars have also attempted to elucidate the function of the ark by analogy with the extra biblical world or by applying their hypotheses to the biblical material. While non-Bible sources have their own weight,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texts and the Israelite religion.

This paper has tried to contribute to the debate by emphasizing the function of the ark as a revelatory vehicle for the divine attributes. The various narratives belonging to the early stage of Israelite history are evidence that the ark functioned as a revelatory instrument of Yahweh's attributes. When the Israelites saw the miraculous powers of God in association with the ark, they were in no way attributing magical powers to the ark itself.

Instead,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that Yahweh is omnipotent, omnipresent, good, holy and sovereign. In this way, the ark functioned as a revelatory tool of his attributes.

**Keywords** | the ark, the ark of the covenant, throne,  
footstool, cherubim, divine attribute

## 1. 서 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법궤는 하나님의 특별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서 널리 이해되었다. 이러한 기본이해에 근거해서 지난 세기의 여러 학자들이 구약의 법궤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제기했다: 물신상자, 하나님의 형상을 운반하는 도구, 모형 성전,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 보관상자, 전쟁수호신, 지파동맹의 공간적 중심. 이 견해들은 법궤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이 견해들이 얼마나 구약본문의 지지를 받느냐는 것이다.

본고는 이 제안들을 간략하게 평가하고 법궤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데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필자의 주장은 구약 역사적 본문에 나타난 ‘법궤 본문’에 대한 주석적, 신학적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 2. 법궤의 기능에 대한 비평적 견해

### 2.1. 종교사학파적으로 본 법궤의 기능

성경에 나타난 법궤의 기능을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의 실제적 특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구약의 종교와 이방종교를 일직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이다.

일찍이 로츠(Lotz)는 종교발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초기역사에서 법궤가 ‘하나님/야웨의 궤’라는 이름으로 물신(物神)상자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sup>1)</sup> 이 말은 법궤 자체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숭배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아이히호른(Eichhorn)이 법궤를 중국의 풍습과 비교한 것과 같다. 그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들이 신령하다고 믿는 태산으로 순례를 가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무나 돌을 가져오면 산신이 임재하는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다는 것이다.<sup>2)</sup> 이런 미신적인 생각은 구약의 내용과 잘 맞지 않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법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법궤를 전쟁수호신(war-palladium)처럼 사용했지만(삼상 4) 그것이 법궤의 본유의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법궤가 그런 물건이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야했을 것이다. 성령에서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대상 13:12)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은(삼하 6:7) 법궤 자체에 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있다.

구트(Guthe)는 법궤를 이집트의 범선(bark)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르는 상자로 보았다.<sup>3)</sup> 이집트에서 종교행사를 할 때 쓰이는 범선은 네기둥으로 싸인 벽감(niche)에 서있는 신의 형상을 나른다. 이것은 법궤를 이집트 범선의 가나안 토착화로 보는 종교사학과적인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레스만(Gressmann)은 법궤는 원래 야웨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sup>4)</sup>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은 나중에 넣은 것이다. 그리고

1) W. Lotz, “Die Bundeslade,” in *Festschrift der Universität Erlangen I*, (Erlangen, 1901), 12, 15, 30, 41f.: “JE, Lade Jahves oder Lade Gottes: Fetisch; D, Bundeslade: der Verhältniss zwischen Gott und Israel; P, Lade des Zeugnisses: die Bestätigung mit einer gewissermassen sakramentale Bedeutung.”

2) W. Eichhorn, *Die Religionen Chinas*, (Stuttgart: W. Kohlhammer, 1973), 47.

3) H. Guthe, *Geschichte des Völkes Isreal*, (Freiburg: J.C.B. Mohr, 1899), 31.

그 야웨의 형상은 여성과 함께 두 개였을 것으로 추측했다.<sup>5)</sup> 그는 야웨 하나님을 바알과 같이 여겼다. 구트와 그리스만의 견해 전 역사에 걸쳐서 형상숭배를 철저히 거부하는 이스라엘 종교의 특성에 반하는 것이다.

## 2.2. 전승사 비평의 입장에서 본 법궤의 기능

전승사비평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궁켈(Gunkel)은 성경과 근동의 병행 자료와 관련해서 법궤를 ‘보좌’(Thronsitz)로 보았다(렘 3:16; 민 7:89; 10:35f.; 삼상 3:3; 출 25:22, 30:6; 겔 1; 계 4).<sup>6)</sup> 물론 이것은 새로운 견해는 아니고 모세가 이집트 양식을 따라서 법궤를 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빈 보좌’의 개념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마인홀트(Meinhold)의 견해를 상당부분 따른 것이다.<sup>7)</sup> 이것은 또한 법궤의 개념을 페르시아의 신 아후라마즈다(Ahura Mazdâ)의 ‘빈 보좌-수레’에서 유추한 디벨리우스(Dibelius)의 입장도 과도 비슷하다.<sup>8)</sup> 이 보좌개념은 종교현상에 근거한 유추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적 지지도 받기 어렵다. 특별히 궁켈이 인용한 ‘보좌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도 실제로는 보좌와는 상관없는 본문이다(민 10:35f.; 렘 3:16f.). 이른바 ‘법궤의 노래’로 알려진 민수기 10:35-36에서 qūmā

4) H. Gressmann, *Mose und sein Zeit*,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13), 231 “Die Lade ist der von Jahve selbst gewollte Ersatz für das willkürlich geschaffene goldene Kalb.”

5) H. Gressmann, *Die Lade Jawes und das Allerheiligste der Salomonischen Tempels*, (Berlin: Kohlhammer, 1920), 44, 64-68.

6) H. Gunkel, “Die Lade Jahves ein Thronsitz,” (*ZMR*21, 1906), 35-42; *Das Märchen im Alten Testament*, (Frankfurt am Main: Athenäum, 1987), 97: “der alte Orient stellt solche Thronträger nicht selten dar; in dieser Obliegenheit sind sie an der Lade jahves abgebracht.”

7) J. Meinhold, *Die Lade Jahwes*, (Tübingen: J.C.B. Mohr, 1900), 17f., 25ff., 43ff.

8) M. Dibelius, *Die Lade Jahves*, Eine relig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FRLANT 9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6), 60-63.



와 šūbā는 문맥상 ‘일어나다’와 ‘앉다’로 번역하기 보다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진진하다’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다’로 번역해야 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법궤와 보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리고 “그 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렘 3:17)라는 표현은 마치 예루살렘이 법궤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sup>9)</sup> 본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유다백성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2:27; 7) 법궤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다루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0)</sup>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는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시정해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법궤가 야웨의 보좌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사실 구약은 야웨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증언하는(출 17:16; 왕상 22:19; 사 6:1) 반면에 상자 모양의 법궤를 보좌 개념과 직접 연결시키는 않았다. 그 대신 예루살렘이나 성소를 땅위의 보좌라고 한다.

마틴 노트(M. Noth)는 법궤를 ‘지파동맹체의 공간적 중심’으로 이해했다. 물론 법궤가 열 두 지파의 삶에 중심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파동맹체’(amphictyonie) 가설은 그가 이스라엘이 고백한 전승의 역사라고 보는 성경역사로부터 실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노트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연합한 부족동맹체에서 이스라엘 지파동맹체의 구조를 유추하였다. 그는 원래 유목민 씨족들의 이동 성소였던 법궤가 가나안 정착이후에 형성된 이스라엘 지파동맹체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1)</sup> 그의 법궤에 대한 주장은 이 지파동맹체 가설의 타당성에 달려있

9)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 Cf. W.L. Holladay, *Jeremiah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121; R.P. Carroll, *Jeremiah*, OTL, (London: SCM Press, 1986), 150; P.C. Craigie, P.H. Kelley & J.F. Drinkard, Jr., *Jeremiah 1-25*, WBC 26,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1), 61; J. Schreiner, *Jeremia 1-25, 14*,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29; J.A. Soggin, The Ark of the Covenant, Jeremiah 3,16. in *Le livre de Jérémie*, P. Bogaert (ed.),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221, etc.

10) D.R. Jones, *Jeremiah*, NCBC,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1992), 103.

11) M. Noth,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Beiträge zur Wissenschaft vom Alten und

다.<sup>12)</sup> 여기서 그 이론을 충분히 다룰 수는 없지만 노트의 이론을 따르면 성경의 족장사와 가나안 정복시는 원인론적인 민담에 지나지 않는다.<sup>13)</sup> 이렇게 자신의 가설로 성경본문에 나타난 역사를 훼손하면서 법궤의 기능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주석과 신학적 결론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폰 라트(von Rad)는 전승의 발전에 근거하여 법궤의 기능을 제시했다. 옛날에는 법궤를 ‘보좌’로 이해했으나 ‘신명기 기자’는 법궤가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기 위한 ‘단순한 상자’로 묘사했다는 것이다(신 10장).<sup>14)</sup> 신명기 기자는 과거의 개념에 대한 ‘비신화화’와 합리화를 통하여 법궤에 대한 거룩한 의미나 신학적 의미를 배제하고 ‘단순한 보관함’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

Neuen Testament Heft 52,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6), 46ff.; M. Noth, *Geschichte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88ff.

12) 노트의 지파동맹체 가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반박을 받았다: G.E. Wright, *The Old Testament and Theolog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9), 128f.; G.W. Anderson, “Israel: Amphictyony: ‘am; kâhâl; ‘ēdâh,” in *Translating &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H.T. Frank & W.L. Reed (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70), 148; S. Herrmann, *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München: Chr. Kaiser, 1980), 146; N.K. Gottwald, *The Tribes of Yâ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1250-1050 B.C.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79), 356f.; S. Bock, *Kleine Geschichte Israels*, (Freiburg: Herder, 1998), 40-42.

13) M. Noth, *Das Buch Josua*, (Tübingen: J.C. Mohr, 1953), 31-33; cf. Ed. Noort, *Das Buch Josua*, EF 292,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8), 148; S. Mowinckel, *Tetrateuch - Pentateuch - Hexateuch*, BZAW 90, (Berlin: Töpelmann, 1964), 33-35; F. Langlamet, *Gilgal et les récits de la traversée du Jourdain*, (Paris: Gabalda, 1969), 128.

14) G. von Rad,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56; “Die Lade ist in unserem Text recht nüchtern als ein Behälter zur Aufbewahrung der Tafeln verstanden (1 Kön. 8:9). Diese Auffassung unterscheidet sich erheblich von der älteren, die in ihr den Thronstuhl Jahwes sah (4. Mose 10:35f.; 1. Sam. 4:4; Jer. 3:16f. u.ö.); von Rad, “Zelt und Lade,”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B8*, (1958), 112

15) G. von Rad, *Deuteronomium=Studi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47), 27: “es handelt sich bei der dt. Auffassung als eines Aufbewahrungsbehälters für die Gesetzestafeln offenbar um ein “Entmythologisierung” und Rationalisierung der alten Anschauung!”

신명기와 ‘신명기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면 ‘신명기 기자’는 여전히 법궤에 거룩한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명기 10:1-5은 요약형식으로서 지나가면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에서(출 25) 법궤제작에 대한 상세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궤를 다루는 규정(신 10:8)과 율법과의 관계(신 31:26)에 나타나는 ‘신명기적’ 용어는 법궤를 단순히 보관함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궤와 관련해서 ‘아웨 앞에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신명기 기자’가 법궤의 거룩성 뿐만 아니라 아웨의 신적임재의 상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신 17:2; 18:7; 26:10; 수 4:13; 6:8; 7:23; 사 20:23, 26; 삼상 6:6 etc.).<sup>16)</sup> 그래서 신명기가 법궤를 비신화화함으로써 단순한 보관함으로 묘사했다는 폰 라트의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신명기 기자’는 법궤의 본질적 속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2.3. 고고학적 근거로 본 법궤의 기능

므깃도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굴물에 근거해서 메이(H.G. May)는 법궤를 신이 거하는 ‘모형 성전’(Miniature Temple)으로 이해했다.<sup>17)</sup> 물론 모형 성전과 법궤는 그 모양이 서로 다르지만 기능이 유사하다고 한다.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과 법궤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능이 같다는데서 법궤를 모형 성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법궤는 유일한 것이고 모형 성전과 관련된 제의는 메이의 말대로 팔레스타인과 고대근동 도처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점이다.<sup>19)</sup> 사실 우리는 도기로

16) Cf. Ian Wilson, “Merely a Container? The Ark in Deuteronomy,” in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John Day (ed.),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5), 212-237.

17) H.G. May, “The Ark- a Miniature Temple,” *ATSL* 52, (1936), 215ff.

18) May, “The Ark- a Miniature Temple,” 244.

19) May, “The Ark- a Miniature Temple,” 119.

된 그 모형 성전(30×20×20cm)의 기능과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제의에 사용되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나 이교도의 제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일 그것이 단순한 장식품이라면 그것을 법궤와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고대근동의 조약문서를 보관하는 관행과 비블로스(Biblos)와 므깃도(Megiddo)에서 발견된 유물에 근거해서 법궤를 ‘발등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롤랑 드보(R. de Vaux)는 고대근동에서 조약문서를 왕의 발등상에 두는 것과 십계명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두는 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이 증거문서를 법궤에 두는 것은 그것이 발등상, 이후의 아웨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문서는 하나님의 발아래 놓인다.”<sup>20)</sup> 메팅거(Mettinger)도 그가 비블로스의 아히람의 돌판에 있는 유물과 므깃도에서 출토된 상아판에 근거하여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룹의 기능을 설명할 때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sup>21)</sup> 이때 그룹은 보좌가 된다. 구약에서 법궤가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단 한번 나타난다(역대상 28:2).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법궤가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과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대상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법궤 전체를 가리키지 법궤를 그룹이나 속죄소를 분리해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궤와 그룹은 따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sup>22)</sup> 그래서 헛 족속의 종주권 언약과 고고학에 근거하여 그룹의 기능을 보좌로 법궤의 기능을 발등상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시 132:7). 사실 구약은 발등상의 개념을 넓게 사용하고 있다: 땅(사 66:1), 예루살렘, 시온 혹은 성전(애 2:1).

20) R. de Vaux, *Bible et Orient*, (Paris: Les ditions du Cerf, 1967), 256: “L’instrument de ce traité est déposé dans l’arche et, puisque celle-ci est le piédestal et, plus tard, le marchepied de Yahvé, ce traité est ainsi mis sous les pieds de Dieu.”

21) Tryggve N.D. Mettinger,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CB, OT Serries 18, (Lund: CWK Gleerup, 1982), 19-24.

22) Cf. H.J. Kraus, *Psalmen 60-150*, BKAT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853: “Lade und Kerubenthron sind nicht voneinander zu trennen.”

### 3. 신학적 접근방식 : 법궤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도구

야웨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속사 맥락에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 하셨다.<sup>23)</sup> 그분의 계시는 현현, 꿈, 환상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역사 속에 나타난 자신의 계시행위는 이스라엘이 야웨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전능, 전지, 선, 거룩, 주권 등.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존재하기 전에도 그분의 속성의 일부를 알았겠지만 그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에서 법궤의 역할을 보았을 때 야웨가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법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여기서 소개할 것이다.

#### 3.1. 하나님의 전능<sup>24)</sup>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이 백성에게 계시된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행위가 나타났을 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다.

23) 야웨는 자기 백성과 민족에게 심판과 구원에서 자신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 “나는 야웨라”(출 6, 7, 8, 9, 10, 14:18, 16:6, 겔 6, 7, 11, 12, 35, 36, 37, 38, 39, etc.)

24) 전능이란 개념은 능력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만 적용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창 17:1), 자신의 전능을 창조에서 이미 보이셨다(창 1:1; 렘 32:17). 전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시 115:3; 135:6).

그것은 그들이 요단강물이 끊어졌을 때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이다. 더욱이 그때가 추수 때라서 강둑까지 물이 넘치던 때였다(수 3:15). 그들이 강을 건널 때 법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섰을 때 강물이 끊어졌고(수 3:16),<sup>25)</sup>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바닥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그 기적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증거한다. 이것은 모든 백성이 야웨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수 4:24). 법궤와 함께 일어난 이 사건은 백성이 야웨의 전능을 볼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여리고 성벽이 함락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성을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잘 훈련된 정규군이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칠 일 동안 그 성읍을 도는 것뿐이었다.<sup>26)</sup> 이 전략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강조된다. 신호용 나팔을 든 제사장과 무장한 자들이 법궤를 앞서가고 후군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이 군사적 원정에서 야웨의 지도력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 작전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 함락은 하나님의 특별 임재로서의 법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은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을 깨달았던 것이다.

25) 이 구문은 저자가 독자들이 기적이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지 건너지 않는 것이 아니다. D.M. Howard, *Joshua*, NAC 5,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8), 130.

26) 여호수아 24:11은 6장의 보도와는 달리 여리고의 귀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Soggin은 좀 더 명확한 칠십인 역 2:18절의 표현과 연결시켜서 여리고 정복은 전쟁을 통한 정복이라고 주장한다: J.A. Soggin, "The Conquest of Jericho through Battle," *Eretz-Israel* 16, (1982), 215-217. 그렇지만 여호수아 6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의한 것이고 그 뒤에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 3.2. 하나님의 무소부재<sup>27)</sup>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의 특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의미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법궤가 속죄소와 그룹과 함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한다면(대상 28:2) 아웨의 편재 개념과 쉽게 연결된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사 66:1)는 표현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존재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우주적이고 영원한 통치자로서 앉아계시지만(시 11:4; 103:19) 그분은 자신의 발을 땅에, 특히 시온에 두신다. 이 심상은 하나님의 주재권(시 119:91; 사 48:13)과 지배권(골 1:16)과 잘 어울린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지만 하늘의 보좌에 상응하는 개념이 되는 땅위의 발등상은 하나님의 내재하는 속성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으로서의 ‘전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그분의 초월성을 반영한다. 이 두 개념은 무소부재와 관련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

### 3.3. 하나님의 선<sup>28)</sup>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나타났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아웨는 그들 가운데 지속

27) 무소부재란 단순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무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창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임재 양식이다(시 139:7-10).

28) 하나님의 선(*tob, hesed*)은 호의, 자비, 사랑과 은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아웨께서 친히 자신의 선(*hesed*)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출 34:6). 시편기자들은 이 두 단어를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했다(23:6; 107:1; 118:1, 29; 136:1).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인 은혜와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비를 포함한다.

적으로 거하기를 원하였다. 이 문맥에서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여행 중에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법궤를 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속사의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무엘서의 처음 몇 장은 실로에서 흠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고, 야웨를 알지 못하던 자였다(삼상 2:12). 그들은 야웨의 제사를 멸시하고 실로의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으로써 가나안의 종교적 관행을 따랐다(삼상 2:22).<sup>29)</sup>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직분수행에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로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을 오염시켰다.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소명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내레이터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전히 그 더러워진 성소에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삼상 3:3). 이것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궤는 자기 백성에 대한 야웨의 선하심과 굳건한 사랑을 나타낸다.

또 다른 경우는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억지로 떼어 놓은 상태에서 두 암소가 끌도록 했다(삼상 6:7, 10).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한 재난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하려고 했다. 이때 암소들은 모성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뱀세메스로 곧장 갔다(삼상 6:12). 하나님은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주권적인 의지를 보여주셨다. 여기서 암소가 자연법을 거스르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29) 동사 *yāškebun*은 미완료로서 반복적인 행위를 뜻한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이른바 봉헌의 행위를 하는 가나안 종교의 의미가 있다.



### 3.4.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근본적인 속성이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qodesh*는 ‘분리’를 의미하지만 이 어원적인 정의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룩에 대한 유력한 설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표현이 그분이 다른 이와 전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이다(사 40:25).<sup>30</sup> 몇몇 본문은 거룩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시 99:9; 111:9; 계 15:4).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다.

법궤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몇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첫째, 법궤가 그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정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이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있기 때문이다(출 28:36; 39:30).<sup>31</sup> 둘째, 법궤는 항상 ‘영광의<sup>32</sup> 그룹’(히 9:5)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아웨께서 나타나시는 장소인 속죄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법궤의 그러한 형태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상적으로 나타낸다. 셋째, 법궤가 안치된 장소는 지성소라고 한다. 이 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둘 다 거룩하다. “아웨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30) Cf. E. Peels, *Shadow Sides: God in the Old Testament*, trans., by H. Lalleman, (Waynesboro, GA: Paternoster Press, 2003), 127.

31) 이집트 사람들은 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금이 경제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들, 특히 태양신 ‘레’의 금속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의 불변성은 내세에 계속되는 생명을 위한 이미지로 여겨진다.” O. Heinemann, “Die ‘Lade’ aus Akazienholz - ägyptische Wurzeln eines israelitischen Kultobjekts?,” *BN*80, (1995), 35. 그러나 성경에서 금은 전능(욥 22:25f.), 메시야적 의미(사 60:17)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벧전 1:7)에 대한 은유로 쓰였다. 이 문맥에서는 금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는 것 같다. Cf. S.T. Hague, “*σ7α;*,” in *NIDOTTE*1, (1997), 506.

32) 영광의 그룹(χερουβι δόξης)에서 영광(δόξης)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William L. Lane, *Hebrews 9-13*, WBC Volume 47B,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1), 261.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항상 거룩하다(출 3:5).

(대하 8:11)고 한 솔로몬의 말은 성막과 무관한 것이다. 넷째, 법궤는 그 거룩성 때문에 지정된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야 했다: 레위인 가운데 고탓 자손(민 4:4, 15).<sup>33)</sup> 다섯째, ‘신명기적’ 표현인 ‘야웨 앞에서’란 법궤가 야웨의 신적인 임재의 상징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명기가 법궤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법궤와 백성의 거리를 이천 규빗을 두는 것은<sup>34)</sup> 법궤의 거룩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법궤의 거룩성에 대한 의식이 없이 부주의하게 그것을 만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곱째, 옷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법궤 옆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민 4:15). 이 사건에서 다윗은 법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야웨를 두려워했다(삼하 6:9). 이것은 법궤 자체의 거룩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의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궤 속을 들여다 본 벤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삼상 6:19).

여기서 열거한 모든 항목은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궤 자체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한다.

33) 하나님의 절대 거룩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의 거룩성을 유지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R. Dennis Cole, *Numbers*, Volume 3b, NAC,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2000), 104.

34) 유대전통(Midrash *Tanhuma*)에 의하면 이천 규빗은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된 거리이다: “In the future you will stand there and observe the Sabbath. Do not go more than two thousand cubits from the ark on any side, so that you can go and pray before it on the Sabbath”: A. Cohen, *Joshua-Judges*, (Soncino: Soncino Press, 1970), 13.

### 3.5. 하나님의 주권<sup>35)</sup>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의 창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성경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과 주재권을 주장한다(시 24:1; 115:3; 대상 29:11; 룰 11:36 등). 그분의 지배권은 열방(삼상 28:17), 온 땅(시 8:2) 그리고 개인에게(겔 18:4)도 미친다. 영어성경 NIV가 히브리어 ‘야웨 주’(yahwê ’adnāy)를 ‘오 주권적 주님’(O Sovereign Lord)으로 번역한 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되심과 주재권을 드러내는 것이다(창 15:2, 8; 신 3:24; 삼하 7:18ff.; 시 68:20; 71:5, 16; 73:28; 109; 21; 140:7 등).

하나님의 주권이 법궤와 관련된 사건은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 때였다.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곤을 굴복시키고 역병으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주재권을 나타내셨다(삼상 4-6). 블레셋 사람들은 단지 법궤만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우월성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가는 방법은 자연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삼상 6:12). 앞에서 언급했듯이 암소들은 그들의 모성적 본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벳세메스로 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강력한 본능은 구속을 향한 자신의 계획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성읍에 역병을 가져다 준 사실을 확고히 입증해준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야웨만이 우주적인 왕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계시해준다(고전 15:25-28; 엡 1:22).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재난을 성난 외국

35)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지존자의 완전함에서 나온 우선권이다. Cf. C. Hodge, *Systematic Theology*, I,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1878), 440. 그러나 Bray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으로 분류한다: G. Bray, *The Doctrine of God*, (Leicester: IVP, 1993), 218.

신의 행위로 이해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행위를 험오스런 관행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백성에 대하여 율법에서 약속한 심판을 행하신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 4. 결 론

법궤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성경 외적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경 바깥의 자료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성경본문과 이스라엘 종교를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성경외적 자료를 단순히 성경해석에 적용시키는 경향은 우리가 성경본문의 의미를 밝히는데 보다 더 주의할 것을 경고한다.

본고는 법궤의 기능을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도구로 봄으로써 이 주제와 관련된 논쟁에 기여하려고 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속한 다양한 본문은 법궤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았을 때 그들은 법궤 자체에 마술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아웨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주권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법궤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쓰였다.

참고문헌

- Anderson, G.W., Israel: Amphictyony: “אֲסֶפְיֹת אֶבְרָהָם אֶבְרָהָם” in *Translating &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H.T. Frank & W.L. Reed (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70.
- Bock, S., *Kleine Geschichte Israels*, Freiburg: Herder, 1998.
- Bray, G., *The Doctrine of God*, Leicester: IVP, 1993.
- Carroll, R.P., *Jeremiah*, OTL, London: SCM Press, 1986.
- Cohen, A., *Joshua-Judges*, Soncino: Soncino Press, 1970.
- Cole, R. Dennis, Numbers, New American Commentary 3b,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2000.
- Craigie, P.C., P.H. Kelley & J.F. Drinkard, Jr., *Jeremiah 1-25*, World Biblical Commentary 26,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1.
- Dibelius, M., *Die Lade Jahves*, Eine relig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FRLANT 9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6.
- Eichhorn, W., *Die Religionen Chinas*, Stuttgart: W. Kohlhammer, 1973.
- Gottwald, N.K., *The Tribes of Yáhwa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1250-1050 B.C.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79.
- Gressmann, H., *Mose und sein Zeit*,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13.
- \_\_\_\_\_, *Die Lade Jawes und das Allerheiligste der Salomonischen Tempels*, Berlin: Kohlhammer, 1920.
- Gunkel, H., “Die Lade Jahves ein Thronszitz,” *Zeitschrift für die Missionskunde und Religionswissenschaft* 21, 1906.
- \_\_\_\_\_, *Das Märchen im Alten Testament*, Frankfurt am Main. Athenäum, 1987.
- Guthe, H., *Geschichte des Volkes Isreal*, Freiburg: J.C.B. Mohr, 1899.

- Hague, S.T., “אֶרֶב” in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1, 1997.
- Heinemann, O., “Die “Lade” aus Akazienholz - ägyptische Wurzeln eines israelitischen Kultobjekts?,” *Biblische Notizen* 80, 1995.
- Herrmann, S., *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München: Chr. Kaiser, 1980.
- Hodge, C., *Systematic Theology* I,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1878.
- Holladay, W.L., *Jeremiah*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Howard, D.M., *Joshua*, New American Commentary 5,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8.
- Jones, D.R., *Jeremiah*,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1992.
- Kraus, H.J., *Psalmen* 60-150, BKAT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ane, William L., *Hebrews* 9-13, World Biblical Commentary 47B,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1.
- Langlamet, F., *Gilgal et les récits de la traversée du Jourdain*, Paris: Gabalda, 1969.
- Lotz, W., Die Bundeslade, in: *Festschrift der Universität Erlangen* I, Erlangen, 1901.
- May, H.G., “The Ark- a Miniature Templ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 and Literature* 52, 1936.
- Meinhold, J., *Die Lade Jahwes*, Tübingen: J.C.B. Mohr, 1900.
- Mettinger, Tryggve N.D.,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CB, OT Serries 18, Lund: CWK Gleerup, 1982.
- Mowinckel, S., *Tetrateuch-Pentateuch-Hexateuch*, BZAW 90, Berlin: Töpelmann, 1964.

- Noort, Ed., *Das Buch Josua*, EF 292,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8.
- Noth, M., *Das Buch Josua*, Tübingen: J.C. Mohr, 1953.
- \_\_\_\_\_, *Geschichte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4.
- \_\_\_\_\_,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Beiträge zur Wissenschaft vom Alten und Neuen Testament Heft 52,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6.
- Peels, E., *Shadow Sides: God in the Old Testament*, trans. by H. Lalleman, Waynesboro, GA: Paternoster Press, 2003.
- Rad, G. von, *Deuteronomium=Studi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47.
- \_\_\_\_\_,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 \_\_\_\_\_, “Zelt und Lade,”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eologische Bücherei* 8, 1958.
- Schreiner, J., *Jeremia 1-25, 14*,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 Soggin, J.A., “The Conquest of Jericho through Battle,” *Eretz-Israel* 16, 1982.
- \_\_\_\_\_, “The Ark of the Covenant, Jeremiah 3, 16,” in *Le livre de Jérémie*, P. Bogaert (ed.),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 Vaux, R. de, *Bible et Orient*, Paris: Les ditions du Cerf, 1967.
- Wilson, Ian, “Merely a Container? The Ark in Deuteronomy,” in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John Day (ed.),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5.
- Wright, G.E., *The Old Testament and Theolog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9.